

조선 영조대 연향의궤 속 도기의 용도와 조달방식*

한 혜 선**

목 차

- I. 머리말
- II. 영조대 궁중연향 실행과 의궤 편찬
- III. 의궤 속 도기의 용도와 종류
- IV. 도기 조달 관사와 방식
- V. 맺음말

국문초록 | 이 글은 18세기 조선 영조대 연향 의궤 두 권 『갑자진연의궤(甲子進宴儀軌)』(1744년)와 『수작의궤(受爵儀軌)』(1765년)를 중심으로 도기(陶器)의 용도와 종류, 조달 관사와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분석을 통해 왕실에서 연향의례를 준비하는 많은 과정에서 도기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도기는 주로 사무용, 음식준비용, 장인에게 지급되는 제작도구 등으로 사용되었다. 연향의례에서 사용된 도기는 도동해(陶東海), 도소라(陶所羅), 도관(陶罐), 도소탕이(陶所湯伊), 도자박지(陶者朴只), 대옹(大甕), 중옹(中甕), 족정(足鼎), 토화로(土火爐) 등이다. 이 도기들은 크기에 따라 대소(大小)가 구분되기도 하고,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서도 여러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연향의례에서 사용된 도기는 공조(工

* 이 논문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20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의궤와 공예품》(2020년 11월 23일 개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韓惠先,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hshan94@hanmail.net
투고일: 2021. 4. 28. 심사완료일: 2021. 5. 31. 게재확정일: 2021. 6. 6.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0..51>

曹)와 공조 소속 와서(瓦署)에서 전담하여 조달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공조 소속 옹장(甕匠)이 조달을 책임지는 구조였지만 이들의 실제 제작까지 도맡았던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세금의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기가 화려한 조명을 받는 기물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의궤만 살펴봐도 왕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서 사용된 필수품목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의궤 속 도기의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은 특정 왕실 행사의 준비와 실행(設行) 그리고 마무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복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연구주제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핵심어 | 조선, 영조, 연향(宴享), 의궤(儀軌), 도기(陶器)

I. 머리말

조선시대 궁중연향은 군신 및 백성들과의 여민동락(與民同樂), 효의 실천과 같은 유교적 덕목을 연회의 형식으로 표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연향은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음악, 음식, 공간, 기물 등을 활용하여 극대화한 대표적 인 행사였기 때문에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많은 물품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관사(官司)가 참여해야 했고 대규모 인력들이 동원되었다. 연향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관사가 꾸려지고 이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조달할 물품과 그것을 담당하는 관사의 배정, 인원 동원, 필요한 물품의 제작과 수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문서와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의궤(儀軌)이다. 조선 왕실의 의궤는 왕실에 관계되는 행사나 사업과 관련되어 남겨진 국가 기록물로,¹⁾ 이것은 추후에 성격이 비슷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할 때 일종의 매뉴얼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동안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선시대 궁중연향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1) 김혜영, 『조선왕조의 의궤와 왕실 행사』, 현암사, 2018, 387쪽.

과 풍부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음악 및 정재(呈才)와 같이 연향이 베풀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²⁾ 기록화와 도설을 중심으로 한 회화사적 접근도 시도되었다.³⁾ 또한 연향음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탐색하기도 하고⁴⁾ 연향에 사용된 장식품 및 기물⁵⁾과 복식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⁶⁾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연향의 최종결과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의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연향의 준비과정, 설행 공간과 기물의 배설, 연향 절차 등을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행사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물품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수많은 공예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도기(陶器)를 꼽을 수 있다. 도기는 기존 연구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지만 행사

-
- 2) 이재숙, 『조선의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성기숙, 『정재의 예악론과 공연미학』, 민속원, 2005;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본질과 여악제도의 변천』, 민속원, 2018; 송지원, 『조선왕실의 음악문화』, 세창출판사, 2020 외 다수.
 - 3)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박정혜, 『영조 대의 잔치 그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안태욱, 『궁중연향도의 탄생』, 민속원, 2014 외 다수.
 - 4) 김상보, 『조선왕실의 풍정연향』, 민속원, 2016; 정희정, 「조선후기 의례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 : 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5 외 다수.
 - 5) 방애영, 「朝鮮末期 宴享 家具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2;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用 白磁 花樽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2;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美術史學報』 48, 2017; 이아름·이은주, 「1829년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儀禮)의 진작(進爵) 기물(器物) 연구」, 『문화재』 50-4, 2017; 이아름,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 기물 연구」, 『규장각』 53, 2018; 유재빈, 「궁중행사도와 의례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연향과 채화(綵花)-진화의 식과 잠화를 중심으로」, 『美術史學』 38, 2019 외 다수.
 - 6) 유송옥, 『조선왕조 궁중의례복식』, 수학사, 1992; 김경실, 『조선시대의 궁중진연복식』, 경춘사, 2003; 박가영, 『조선시대 궁중 패션』, 민속원, 2017; 김소현, 『조선왕실 여인들의 복식』, 민속원, 2017 외 다수.

준비에는 꼭 필요한 물품으로, 궁중연향 전체를 재구성하고 실제에 가깝게 입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궁중연향 의례 가운데 우선 18세기 영조대에 치러진 두 건의 의례를 중심으로 도기의 용도와 종류, 그리고 그것의 조달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744년(영조 20)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한 갑자년 진연과 1765년(영조 41) 영조의 71세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수작례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두 건의 의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행사의 전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도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기라는 창을 통해 궁중연향, 나아가 왕실 행사를 조망하는 시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Ⅱ. 영조대 궁중연향 실행과 의례 편찬

조선왕실은 왕실 소속 일원의 소속감을 극대화하는 한편 군신 또는 백성들과의 여민동락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연향을 베풀었다.⁷⁾ 정기적으로 설행되는 회례연과 양로연을 비롯해 다양한 궁중연향이 있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기와 달리 정기적으로 베푸는 회례연과 양로연이 사라지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베푸는 진연만 주로 설행되었다.⁸⁾ 이때 나라의 경사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왕실 구성원의 생일이나 회갑, 국왕의 기로소 입회 등으

7) 연향은 풍정(豊呈), 진연(進宴), 진찬(進饌), 진작(進爵), 연향(宴享), 수작(受爵)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규모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김종수, 「奎章閣 所藏 연향 관련 儀軌 고찰」, 『韓國學報』 113, 2003, 67~89쪽; 김문식, 「치밀한 의례 기록으로 그린 왕실 연향」,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국립고궁박물관, 2013, 50쪽.

8) 김종수, 「조선 궁궐의 잔치, 예와 즐거움이 어우러지다」,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국립고궁박물관, 2013, 27쪽.

로 다양하다. 왕실의 경사를 축하하는 의례는 각종 기념물을 제작하고 각 절차에 필요한 기물들을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사가 마무리되면 모든 과정을 기록한 의궤와 같은 기록물을 남겼다.⁹⁾

현재 조선 왕실의 연향을 기록한 의궤는 모두 19종이 전한다.¹⁰⁾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연향관련 의궤는 1630년(인조 8) 인조가 당시 왕대비인 인목왕후를 위해 마련한 연향 기록인 『풍정도감의궤(豊呈都監儀軌)』이다. 이 의궤는 1611년(광해군 3), 1624년(인조 2)의 진풍정에 관한 기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17세기 전반 궁중연향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¹¹⁾ 그러나 아쉽게도 기물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그 다음으로 1719년(숙종 45)에 간행된 『기해진연의궤(己亥進宴儀軌)』는 인조때 설행된 진풍정 이후 100여년 만에 왕실 진연 행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 진연은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¹²⁾ 의궤에는 경현당에서 설행된 대전 진연과 9월 30일 중궁전 진연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¹³⁾ 이 의궤부터 각각 담당한 업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었으며,¹⁴⁾ 공문서의 종류에 따라 감결질(甘結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품목질(稟目秩)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모아 놓아 숙종 이후에 간행된 의궤 형식의 전범이 되었다.¹⁵⁾

9)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2009, 9쪽.

10) 김문식, 앞의 논문, 2013, 57~58쪽. 1795년 작성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점으로 의궤의 편찬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전에 해당하는 의궤는 4종이다. 이 가운데 2종이 영조대에 해당한다.

11) 송방송·고방자 외, 『國譯 豊呈都監儀軌』, 민속원, 1999, 30쪽.

12) 정수환, 『조선왕실의 의례와 재원』, 세창출판사, 2019, 182쪽.

13) 송방송·박정련 외, 『國譯 肅宗朝己亥進宴儀軌』, 민속원, 2001, 11쪽.

14) 김문식, 앞의 논문, 2013, 63쪽.

15) 송방송·박정련 외, 앞의 책, 2001, 14쪽. 감결질은 상급관청인 진연청이 아래 관청으로 보낸 공문서를 모은 것이고, 이문질은 동등한 관청 사이에서 주고 받은 공문서를 모은 것이다. 내관질은 관련 관청에서 진연청으로 보낸 공문서를 모은 것이고, 품목질은 상관에게 아뢴 내용을 담은 문서를 모아 놓은 것이다.

『기해진연의궤』에는 이후 영조대 연향 관련 의궤에 등장하는 도기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도 거의 비슷하다. 진연청에서 각종 문서 작성에 소용되는 지필묵(紙筆墨)과 같은 문방구를 포함한 각종 소모품 중에 토화로(土火爐), 도동해(陶東海)와 같은 도기가 포함되어 있다.¹⁶⁾ 행사를 준비하는 장인 가운데 화원(畫員)을 비롯해 각대장(角帶匠), 풍물장(風物匠), 칠장(漆匠)에게도 도동해, 도소라(陶所羅), 토화로가 지급되었다.¹⁷⁾ 이외에 진연에 사용되는 음식을 담당하는 내섬시, 내자시, 예빈시에는 요리사인 숙수(熟手)가 지원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물품 중에 대웅(大甕)이나 도소라와 같은 음식 준비용 도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영조대에는 모두 15차례의 연향이 설행되었으며, 진연·어연·수작·진찬·양로연 등으로 기록되었다.¹⁸⁾ 영조 즉위 초반에는 연향을 피했으나 즉위 40년 이후 칠순을 넘기면서 간소한 형태의 연향은 여러 차례 치러졌다.¹⁹⁾ 수차례 연향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의궤 편찬도 수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43년(영조 19) 영조가 50세가 되고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거의 육순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행된 연향내용을 『계해진연의궤(癸亥進宴儀軌)』로 간행하였다고 전해지나²⁰⁾ 현재는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영조대 연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1744년(영조 20)에 설행된 갑자년 진연을 정리하여 펴낸 『갑자진연의궤(甲子進宴儀軌)』에서 살펴볼 수 있다.²¹⁾ 1744년(영조 20) 9월에 왕이 51세에 기로소에 들어갔는데, 이를 경축

16) 정수환, 앞의 책, 2019, 187쪽.

17) 『進宴儀軌』(奎14358) 二冊 一房, 肅宗45年(1719), “畫員所用五十兩稱子一分稱一陶東海所羅各一沙碗二沙大貼二竹沙鉢一竹沙莫子二土火爐二破地衣一浮二層大櫛鎖鑰具—”

18) 김종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譯註 英祖甲子進宴儀軌』, 민속원, 2017, 20쪽.

19) 송혜진, 「영조조(英祖朝) 궁중 연향 기록과 도상」, 『한국음악문화연구』 8, 2016, 86쪽.

20) 박경지, 「해제」, 『국역 수작의궤』, 국립고궁박물관, 2018, 20쪽.

하여 10월 4일에 대왕대비와 중궁에게, 10월 7일에 왕에게 진연을 올렸으며 서울과 지방의 서민들 가운데 나이 8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쌀과 고기를 내려주었다.²²⁾ 이 진연을 준비하기 위해 행사를 담당할 처소가 설치되고 습의(習儀)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집기와 물품이 지급되었다. 의례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청소장·일방의례·이방의례로 구분된다. 행사 전체를 총괄하는 도청에서 들고 난 각종 문서에 관한 내용은 도청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일방은 정재에 소용되는 각종 풍물과 관복, 잡물을 수보하고 개조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²³⁾ 이방은 음식준비와 상차림에 관한 제반사항과 물품 제작과 보수에 참여한 장인의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²⁴⁾

1765년(영조 41) 10월 11일 경희궁 경현당에서 거행된 수작례(受爵禮)는 왕세손[정조]이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이하 문무 관원들과 더불어 영조의 71세를 기념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영조는 사치를 경계한다는 입장에서 진연을 받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였으나²⁵⁾ 왕세손이 음식을 물리치면서까지²⁶⁾ 간절히 청하자 진연이 아닌 간소한 수작만을 치르게 되었다.²⁷⁾ 이를 기록한 것이 『수작의례(受爵儀軌)』이다. 연향 자체가 워낙 급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의례의 내용은 『갑자진연의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21) 진연의례는 현재 여러 종이 전하나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연향이 치러진 연대의 간지를 적용하여 구분하고 있어 필자도 그에 따랐다.

22) 김종수 역주, 앞의 책, 2017, 16쪽.

23) 정수환, 앞의 책, 2019, 228쪽.

24) 김종수 역주, 앞의 책, 2017, 51쪽.

25) 『英祖實錄』 卷106, 41년 9월 28일 신축; 『英祖實錄』 卷106, 41년 10월 1일 계묘.

26) 『英祖實錄』 卷106, 41년 10월 4일 병오.

27) 박경지, 앞의 논문, 2018, 13쪽.

Ⅲ. 의궤 속 도기의 용도와 종류

앞 장에서 살펴본 영조대에 간행된 2건의 연향 의궤에서 감결질, 품목질, 용환질(用還秩)에 주로 기재되어 있다. 감결질과 품목질은 모두 행사를 준비하는 여러 관사들 사이에 오고 간 공문서로, 사무공간이나 장인들에게 지급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 중에 도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도기가 다수 기재된 부분은 용환질로, 행사를 위해 각 관사에서 빌려 쓴 물품들을 사용하고 한 후에 반환한 것을 기록한 부분에도 다수의 도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도기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물품으로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기가 연향에서 주로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영조대 간행된 『갑자진연의궤』와 『수작의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교적 자세하게 도기에 관한 정보가 남아 있는 『갑자진연의궤』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표 1).²⁸⁾

[표 1] 『갑자진연의궤』에 기재된 도기의 용도와 종류

출 처	용 도	종 류
진연청의궤 감결질(甘結秩) 갑자년 9월 모일	당상관 업무 수발 다모 의 음식준비용	도동해 1개, 소라 1개, 약당 관 1개, 토화로 3개, 토봉로 3개
일방의궤 품목질(稟日秩) 갑자년 9월 3일	사무공간 난방용	토화로 1좌
일방의궤 품목질(稟日秩) 갑자년 9월 3일	회원, 여러 분야의 장인, 침선비 지급 물품	도동해 2개, 도소라 1개, 토 화로 4개

28) 이 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김종수 역주, 앞의 책, 2017.

일방의궤 품목질(稟目秩) 갑자년 9월 3일	풍물장 지급 물품	도관 2개
일방의궤 용후환하질(用後還下秩) 갑자년 10월 모일	사용 후 본래 관사에 반환	토화로 5부, 도동해 2개, 소소라 3개, 도관 3개
이방의궤 품목질(稟目秩) 갑자년 9월 3일	사용 후 본래 관사에 반환	토화로 5좌, 족정 2좌, 도소탕이 3좌, 대용 1좌, 도소라 4좌, 도관 3부, 도자박지 10
이방의궤 감결질(甘結秩) 갑자년 9월 4일	참여 장인 목록 서류 작성용	토화로 2부
이방의궤 감결질(甘結秩) 갑자년 9월 11일	칠장 지급 물품	도관 4부
이방의궤 감결질(甘結秩) 갑자년 9월 14일	각도에서 공급받은 청밀을 담는 용기	도소탕 5좌
이방의궤 용환질(用還秩)	사용 후 본래 관사에 반환	토화로 5좌, 족정 3, 도소탕 3좌, 대용 1좌, 도소라 4개

1. 용도

연향의궤에 기재된 도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기는 행사 관련 사무를 보는 관리들이 차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필수 품목 중 하나였다. 이때에는 관리에게 차와 술 대접 등의 잡일을 맡아 하던 관비(官婢)인 다모(茶母)에게 각종 기물이 지급되었다.²⁹⁾ 다음의 기록을 보자.

갑자년 9월 모일. 본청 당상관이 업무를 볼 때 쓸 연갑(硯匣)·서관(書板)·전판(剪板) 각 1개를 바치고... 다모가 쓸 도동해·소라·사발(沙鉢)·휘건(揮巾)·다

29) 다모는 여러 관사에서 차와 음식 등 잡일을 하는 인원이다.

보아(茶甫兒)·약탕관(藥湯罐)·사타구(沙唾口)·사잔대구(沙盞臺具) 각 1개, 토화로 3개, 토봉로(土峯爐) 1개 등을 부리나케 바치며...³⁰⁾

위의 기록에 따르면 다모가 음식과 차 준비에 필요한 물품 중에 도기와 백자가 섞여 있었다. 다보아, 타구, 잔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음식보다는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는 차도구이다. 다모가 쓰는 물품은 사용후에 본래 관사로 돌려주는 용환차(用還次)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행사에 사용하는 물품의 상당 부분을 관련 관사에서 보관했다가 필요에 따라 재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³¹⁾

둘째, 행사준비에 동원된 관리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난방용으로 도기가 활용되었다. 『갑자진연의궤』 일방의궤 품목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본관 낭청이 업무 보는 곳에 온돌을 지필 나무를 매일 ¼단씩과 연탄(烟炭)을 1되씩 전례대로 바치고, 토화로 1좌와 개꼬리비[尾簾] 1개를 쓰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바치라고 감결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²⁾

이때에는 토화로가 주로 등장한다. 수작례에서도 각 처소에서 일할 때 토화로를 사용했으며, 이것은 사용 후 돌려주는 조건으로 와서(瓦罽)에 명을 내려 조달하였다.³³⁾ 같은 의궤 이방(二房)에서도 역시 사용할 물품 중 하나로 문서작성에 필요한 것으로 토화로를 꼽고 있다.³⁴⁾ 수작례의 경우 연향이 배풀어진 시점이 음력 10월로 초겨울이었고, 급하게 의례가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이 있었다. 이때 의례 준비와 실행을 위해 각종

30) 김종수 역주, 앞의 책, 2017, 197쪽.

31)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2001, 209쪽.

32) 김종수 역주, 앞의 책, 2017, 232쪽.

33)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受爵儀軌』, 2018, 170쪽.

34) 국립고궁박물관, 위의 책, 228쪽.

문서를 작성할 때 난방이 필요했다. 이렇게 사무공간에서 난방용으로 토화로를 사용한 사례는 『가례청등록(嘉禮廳臚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잉군 출함을 위해 사무를 보던 가례청의 경우, 출합일이 정월 25일이어서 이를 준비하는 기간이 한겨울이었다. 따라서 관리들의 근무 편의를 위해 난방을 목적으로 땔나무와 숯이 제공되었고 불을 피울 때 토화로를 사용했다.³⁵⁾

셋째, 도기는 연향에 제공되는 음식을 장만하는 과정과 음식재료를 보관할 때 반드시 필요했다. 이는 『수작의궤』를 보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내자사에서 연향 음식을 준비하는 숙수에게 도소라 4개, 도소탕이(陶所湯伊) 4개, 도항(陶缸) 2좌를 지급하였다.³⁶⁾ 같이 지급된 물품 중 유동해(鎬東海), 유소라(鎬所羅) 등이 있어 기형은 동일하지만 재질이 다른 것들을 섞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섬시에서는 외선상을 담당하였는데, 대옹(大瓮) 3·중옹(中瓮) 3·도동해 7·도자박지(陶者朴只) 5·도병(陶瓶) 5·도항 5개를 공조가, 토화로 3개는 와서에서 공급하였다. 사축서(司畜署)에서는 돼지와 같은 육류를 잡아서 삶아 진배(進排)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 필요한 수옹 2개, 도동해 3개가 지급되었다.³⁷⁾ 이것들은 모두 공조에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연향에 사용되는 음식재료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도기가 다수 사용되었는데, 각도에서 올라오는 청밀(淸蜜)을 담을 수 있도록 도소탕(陶所湯) 5좌를 급히 바칠 것을 공조에 요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⁸⁾

넷째, 연향에 사용되는 각종 기물을 제작할 때 각 장인에게 지급되는 제작 도구의 일종으로 도기가 사용되기도 했다. 『갑자진연의궤』를 보면 여러 직종의 장인과 침선비에게 도동해와 토화로를 지급하였다.³⁹⁾ 이러한 사례는

35) 김지영 외 역주, 『숙종과 영조의 일생의례 책례가례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360쪽.

36) 국립고궁박물관, 앞의 책, 2018, 272~277쪽.

37) 국립고궁박물관, 앞의 책, 2018, 304쪽.

38) 김종수 역주, 앞의 책, 2017, 356쪽.

39) 김종수 역주, 앞의 책, 2017, 234쪽.

『가례도감의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각종 물품을 만들 때 장인들에게 재료와 함께 도방문리(陶方文里)·도소라·토화로·도관(陶罐)·도소탕이 등의 도기를 제작 도구의 하나로 지급하였다.⁴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향에서 도기는 사무공간 난방용, 음료용, 음식준비 및 재료보관용, 제작도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영조대 궁중연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기가 왕실 의례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기본 품목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2. 도기의 종류

앞 절에서 영조대에 간행된 연향의궤 2건에 기재된 도기의 다양한 용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도기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갑자진연의궤』와 『수작의궤』 두 건의 연향에서 사용된 도기는 도동해, 도소라, 도관, 도소탕이, 도자박지, 대옹, 중옹, 죽정, 토화로 등이다. 도소라는 소(小), 중(中)을 붙여 크기를 나타내어 표기하기도 하며, 옹은 대옹과 중옹으로 크기에 따라 구분하기도 했다. 도소탕이는 끝음절 이(伊)를 빼고 도소탕으로만 기재한 경우도 있다. 이들 도기는 대부분 연향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 아니라 궁궐 또는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어서 별도로 의궤에 도설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재질의 도설자료, 조선시대 회화자료, 실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사례 등을 통해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향의궤에서 가장 많이 기재된 도기는 도동해이다. 근대기 이후에는

40) 신병주, 앞의 책, 2001, 265~273쪽.

이것을 동이로 불렀으며,⁴¹⁾ 현재도 대부분 동이로 부르고 있다. 『임원경제지』 「섬용지」에서는 도부(陶缶)라 지칭하고 양쪽에 귀를 만들어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한번 넘어지면 바로 깨져서 무익해지지만 날마다 쓰는 살림살이로 가장 요긴하다 하였다.⁴²⁾ 근대기 자료나 김홍도의 풍속화 등의 조선시대 회화자료를 통해 추정해보면, 편평한 바닥에서 살짝 벌어지면서 동체와 연결되며 동체 중간에 가로띠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도 1). 주로 물을 담아서 운반하는 용기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되는 동해가 유동해, 주양동해(鑄涼東海)라 하여 도설로 남아 있는 예가 있다.⁴³⁾ 이를 살펴보면 동체 중간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 구연 지름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질에 따라 세부적인 형태는 달랐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동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다수 사용되지만 영조대 의례 기록만 살펴봐도 화원(畫員), 각대장(角帶匠), 풍물장(風物匠), 칠장(漆匠), 마경장(磨鏡匠) 등에게 지급되는 제작 도구 중 하나로 자주 등장하여 쓰임이 다양했던 것을 알 수 있다.⁴⁴⁾

41) 아사카와 다쿠미 저·심우성 역,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고재, 1996, 153~155쪽. 畚 또는 盆으로 표기하였고, 크기에 따라 두멍, 자막이 등으로 불렀다. 동체 한쪽에 주구가 있는 것은 귀때동이라고 하였다.

42) 서유구 저·임원경제지연구소 역, 『임원경제지 섬용지 1』, 풍석문화재단, 2016, 3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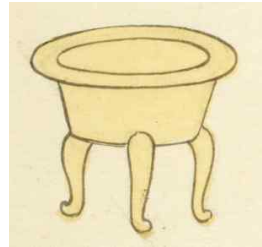
43) 김종수 책임번역, 『國譯 祭器樂器都監儀軌』, 민속원, 2020, 57쪽.

44) 『英祖貞聖后復位時冊禮都監都廳儀軌』(奎13100) 英祖2年(1726), “稟目秩...磨鏡匠所用 延日礪石一塊 祥原礪石一塊 手巾布二尺 鍊刀二介 陶東海一介”; 『英祖貞純后嘉禮都監都廳儀軌』(奎13102), 英祖35年(1759), “稟目秩...磨鏡匠所用 半月刀 二箇 延日礪石中礪石強礪石 各一塊 手巾布 四尺 白牛皮 一令 空石 三立 陶方文里 二箇 陶東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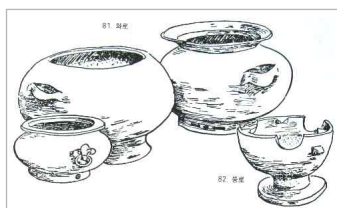
도 1. 김홍도, <단원풍속화첩-우물가>, 조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화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도기 중 하나이다. 토화로는 난방 또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의궤에서는 대부분 토화로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문헌에서도 대체로 도제 화로는 토화로로 지칭하였다. 화로는 도제 이외에도 목제, 유기, 철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는데, 금속제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의궤 도설을 통해 다리가 셋 달린 형태가 대표적이었다(도 2). 『임원경제지』 「섬용지」에는 도로(陶爐)와 토로(土爐)가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체가 깊고 넓은 형태이나 모양은 일정하지 않다고 하였다.⁴⁵⁾ 이는 도제 화로의 형태가 다양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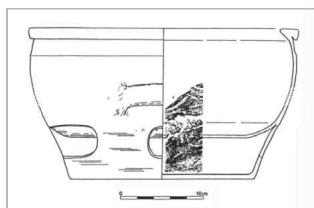


도 2. 금속제 화로 도설,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

의 상황을 반영한 아사카와 다쿠미의 책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3가지 형태의 도제 화로가 제시되어 있다(도 3).⁴⁶⁾ 이 가운데 실제 조선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도제 화로는 아래쪽에 불씨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형태로, 안성 망이산성 봉수대, 청진6지구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⁴⁷⁾ 이와 유사한 토화로가 국립민속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도 4~6).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화로의 형태가 재질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도제 화로는 구멍이 뚫린 다리가 달려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 3. 토화로, 『朝鮮陶磁名考』



도 4. 토화로,
안성 망이산성 봉수대 출토



도 5. 토화로,
청진6지구 건물지 출토



도 6. 토화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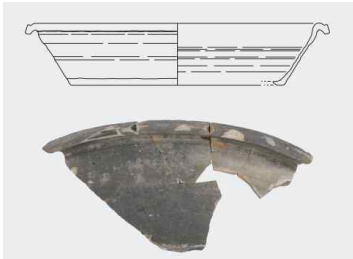
45) 서유구 저·임원경제연구소 역, 『임원경제지 섬용지 3』, 풍석문화재단, 2017, 35~37쪽.

46) 아사카와 다쿠미 저·심우성 역, 앞의 책, 1996, 139쪽.

47)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 1996;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서울 淸進6地區 遺蹟』, 2007.

소리는 몸통이 납작하고 밑은 좁고 아가리가 넓은 세수대야처럼 생겼고 항아리의 뚜껑으로도 사용되었다.⁴⁸⁾ 경북궁에서 도소라로 추정할 수 있는 도기가 여러 점 출토된 바 있다(도 7).⁴⁹⁾ 근대기에는 소래기라고도 불렀으며, 분(盆)·당(甕)·대분(大盆) 등의 한자로 표기하였다고 한다.⁵⁰⁾ 소라는 의례에 유소라(鎡所羅), 동소라(銅小羅) 등이 재질이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도소탕 또는 도소탕이라고 불리는 도기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임원경제지』 「섬용지」를 보면 5~6두용 항아리를 전항이(田缸伊)라고 불렀는데,⁵¹⁾ 이를 한글로는 뱃탕이라 하였다.⁵²⁾ ‘소(所)’가 한글로 발음할 때 ‘바’라는 점을 고려하면⁵³⁾ 도소탕 또는 도소탕이는 근대기 뱃탕이와 유사한 형태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동이와 유사하나 동체 상부부터 구연까지 좁아 들면서 연결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도 8).



도 7. 추정 도소라,
경북궁 흥복전 주변지역 출토



도 8. 뱃탕이, 『朝鮮陶磁名考』

48) 서유구 저·임원경제연구소 역, 앞의 책, 2016, 369쪽.
 49)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북궁 흥복전 주변지역 발굴조사보고서』, 2014.
 50) 아사카와 다쿠미 저·심우성 역, 앞의 책, 1996, 152쪽.
 51) 서유구 저·임원경제연구소 역, 앞의 책, 2016, 365쪽.
 52) 아사카와 다쿠미 저·심우성 역, 앞의 책, 1996, 152쪽.
 53) 김연주, 『조선시대 의례 차자 표기 연구』, 경인문화사, 2015, 215~217쪽. 이 책에서는 ‘바’는 음차할 수 있는 한자가 없어서 ‘所’에서 혼차한 것이기 때문에 도소탕이 아니라 도바탕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족정(足鼎)은 도기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기를 나열하는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도기제일 가능성이 높다. ‘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발이 셋 달린 형태의 솔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서울시내 조선시대 유적인 종묘광장 인근 건물지와 종로 어영청지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는데, 동물모양의 다리가 세 곳에 달렸다(도 9, 10).⁵⁴⁾



도 9. 추정 족정, 종묘광장 인근 출토



도 10. 추정 족정, 종로 어영청지 출토

도관은 금속을 제련할 때 사용하는 도가니일수도 있지만 도기제 주전자일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의궤에 금속 제련용으로 사용하는 도가니일 경우에는 도관이(陶罐伊)로 기재되어 있어 도관과 도관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조대에 편찬된 의궤에서 도관이 사용된 사례를 찾아보면 소목장(小木匠)이나 궁장(弓匠)과 같이 목재를 주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작하는 장인에게 지급하는 제작도구의 하나로 항상 도관이 들어가 있다. 이 장인들은 금속 제련용 도가니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작 공정상 물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도관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근대기의 자료이긴

5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종묘광장 발굴조사보고서』, 2012; 한울문화재연구원, 『종로 어영청지유적』, 2011.

하지만 다관(茶罐)을 손잡이가 달리고 동체 측면에 출수구가 있는 것으로 명명한 것을 보면 도관은 주전자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⁵⁶⁾ 더욱이 도관은 주로 왕실 행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명을 나열할 때 도동해, 도소라, 토화로 등과 같이 기명류 부분에 기재되었다. 그리고 행사 이후에 본래 지급한 관사로 돌려주는 물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완성품의 하나로 보관했다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명으로 봐야 한다.

대옹과 중옹은 음식준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기로, 연향에서는 숙수(熟手)에게 지급되거나 숙설소에 배치되었다. 물을 담았던 짐을 강조하기 위해 수옹(水甕)으로 표기하기도 한다.⁵⁷⁾ 음식준비에서 꼭 필요한 물을 저장하거나 장·초·꿀·술 등을 제조 또는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17세기 초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선묘조제제경수연도(宣廟朝諸宰慶壽宴圖)>을 보면 궁중행사에서 숙수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여기에 물을 저장한 대옹이 자리하고 있다(도 11). 실제로 궁궐유적에서 대형 도기항아리가 다수 출토되고 있어 일상적으로 또는 행사에서 도기가 사용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55) 『莊祖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13108), 英祖12年(1736), “甘結秩...小木匠所用陶罐一小爐匠所用竹篩一木瓢子三箇...”; 『英祖貞純后嘉禮都監都廳儀軌』(奎13102), 英祖35年(1759), “稟目秩...弓匠所用陶罐一箇 加時木剪板 四箇 鋤金 二部 涼板 一立手巾布 二尺 條所 一良衣 木把槽 二部 櫛 一部具鎖鑰 空石 七立 破地衣 一浮 陶所羅三坐...”

56) 아사카와 다쿠미 저·심우성 역, 앞의 책, 1996, 105쪽.

57) 국립국악원, 『역주 기사진표리진찬의궤』, 2018, 108~109쪽. 연향음식을 준비하는 숙설소에 음식 장만용으로 지급된 주방용품은 여러 재질이 섞여 있다. 여기에 수옹, 도동해, 도소라, 도중, 도소탕 등 다양한 형태의 도기가 포함되어 있다.



도 11. 작자미상, <宣廟調諸宰慶壽宴圖>, 조선,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상과 같이 영조대 궁중연향 의례에 기재되어 있는 도기의 종류와 형태를 살펴보았다. 의례에 도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렵지만 근대 문헌자료와 조선시대 유적 출토품을 통해 일부나마 추정을 시도할 수 있었다.

IV. 도기 조달 관사와 방식

앞에서 궁중연향에서 여러 용도로 도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도기들을 조달한 관사는 어디였을까? 이 장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왕실 행사에 필요한 도기의 제작과

조달을 담당한 관사는 공조(工曹)와 공조 소속 아문의 하나인 와서였다. 즉 조선 후기 궁중연향, 나아가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기의 대부분은 공조에서 책임졌던 것이다.

연향에서 음식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잔치에 참여하는 내외빈을 위한 음식상부터 행사를 위해 동원된 인력의 식사까지 실로 막대한 양의 음식이 필요했다. 음식재료를 저장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을 저장할 때 도기는 필수품이었으며, 이를 공조에서 담당했다. 공조는 궁궐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물을 책임지는 관사로 영조(營造), 공야(攻冶), 산택(山澤)의 삼사(三司)가 있었다. 이 가운데 공야사는 백공(百工)의 제작, 금·은·주옥·동·납·철의 야주(冶鑄), 도와(陶瓦), 권형(權衡) 등의 일을 맡았다.⁵⁸⁾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수작의궤』를 보면 음식상을 담당하는 내섬시, 내자시, 예빈시에서 도기가 사용되었다. 이때 도기 조달은 모두 공조에서 책임졌다. 연향 뿐만 아니라 음식과 관련해서 궁궐에서는 여러 종류의 도기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숙종의 아들이었던 연령군이 가례 이후 궁을 떠날 때, 장(醬) 10옹(甕), 백하해(白蝦醢) 1옹, 난염(卵醢) 2항(缸), 청침채(菁沈菜) 1옹, 과저(瓜蒞) 2옹 등 저장식품을 담는 용기로 도기가 사용되었고 이것을 공조가 담당하였다.⁵⁹⁾

대부분의 도기를 공조에서 조달하였지만 특이하게도 토화로는 공조 소속 아문의 하나인 와서에서 조달을 책임졌다.⁶⁰⁾ 와서가 공조 소속이기는 하나 엄연히 기와 제작과 조달을 책임졌다는 면에서 도기 중심의 공조와는 구별되었다. 기존에 와서는 기와를 조달하는 관사로만 알려져 있으나 도기도 일부

58)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六曹.

5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延齡君嘉禮膳錄』, 2019, 159쪽.

60) 『經國大典』 工典 屬衙門, “工典屬衙門, 尙衣院·繕工監·修城禁火司·典涓同·掌苑署·造紙署·瓦署”; 유본에 저·박현욱 역, 『역주 한경지략』, 민속원, 2020, 179~180쪽. 와서는 개국 초 東窯直, 西窯直 각 1인을 두었고 기와와 벽돌을 제조하는 일을 맡았다. 개국초에 궁궐은 綠琉璃瓦를 덮었다고 한다.

제작 공급했던 사실을 의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와서가 영조대에 5~6섬이 들어갈 수 있는 토로를 바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토화로 조달은 와서 책임이었음을 보여준다.⁶¹⁾

한편 궁중연향에 사용된 도기는 도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제작하여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초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나와 있듯이 대표적으로 마포와 노량진 일대를 꼽을 수 있다.⁶²⁾ 이곳은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왕실용 도기의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도기는 제작 공정상 여러 명이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크기가 커서 원거리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도성 인근에서 제작하여 왕실의 여러 곳에 공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일대를 도기 제작지로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로 『육전조례(六典條例)』를 들 수 있는데, 마포와 노량진 일대가 포함된 용산방(龍山坊)에 옹리(甕里)가 있다고 전해진다.⁶³⁾ 또한 이 지역에 주성리(鑄成里)와 수철리(水鐵里) 등의 지명도 확인되어 도기뿐만 아니라 쇠를 가공하는 장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더욱이 이곳에는 와서가 위치해 있었고 그 위치가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하여⁶⁵⁾ 도성의 서남쪽을 중심으로 도기 제작지가 분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⁶⁶⁾

61) 조영준·최주희 역해, 『공폐』, 아카넷, 2019, 458~459쪽.

62) 成俔, 『慵齋叢話』卷10, “人之所用 陶器最繁 今麻浦露梁等處 皆以陶埴爲業 此皆瓦器缸瓮之類.”

63) 『六典條例』卷4 戶典 五部 坊里.

64)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산업 연구』, 지식산업사, 2013, 170쪽.

65)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용산 한강로 유적』, 2012.

66) 여기에서 한가지 고려할 사항은 궁궐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도의 도기와 왕실 행사에서 사용하는 도기가 상당히 많았고 도성 인근의 도기 제작지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도기의 조달을 책임진 관사가 자체적으로 한강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 왔을 가능성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연향을 비롯한 각종 왕실 행사와 일상적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기는 공조에서 전적으로 조달하였는데, 이 관사에 도기 제작을 담당하는 옹장(甕匠)이 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선전기 대표적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경공장 소속 옹장은 총 104명으로 각 관사별로 고루 배치되어 있었다.⁶⁷⁾ 공조는 옹장이 소속되지 않은 부서나 임시 행사 등에 필요한 도기를 조달할 임무를 맡았다.⁶⁸⁾ 1543년(중종 38)에 완성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는 각 관사에서 사용하는 도기를 각사가 아니라 공조에서 일괄 진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⁶⁹⁾ 16세기를 거치며 왕실 또는 왕실 행사에서 사용하는 도기는 공조로 일원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실 17세기 공조에 소속된 옹장이 많으나 1653년(효종 4)에 이미 4명만이 역에 응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고⁷⁰⁾ 공조 소속 옹장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기도 했다.⁷¹⁾ 그래서 1785년(정조 9)에 완성한 『대전통편(大典通編)』의 공전(公典) 공장조(工匠條)를 보면, 옹점장인(瓮店匠人)의 경우 공조에 세금으로 도기를 진배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²⁾ 사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간행된 법전에는 여전히 각 관사별로 옹장이 소속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폐단으로 직접 제작하여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구입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도기 조달만 책임지는 구조로 변화해갔던 것으로 생각된다.⁷³⁾

67) 한혜선, 「조선시대 왕실 소용 도기의 제작 시고」, 『동아시아의 궁중미술』, 한국미술연구소, 2013, 409쪽.

68) 국립문화재연구소, 『옹기를 만드는 사람들』, 2009, 17쪽.

69) 『대전후속록』 雜令, “諸處應用陶器 專委工曹甕匠造作進排 毋得侵責各司甕匠.”

70) 『承政院日記』 卷128, 효종 4년 8월 23일.

71) 『承政院日記』 卷224, 현종 12년 9월 12일.

72) 『大典通編』 公典 工匠.

73) 기존에는 의궤에 기재된 東海匠이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도기를 제작하는 장인이었을 것으로 보았다(김중수 책임번역, 앞의 책, 2020, 57쪽 참조). 필자 역시 의궤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좁게는 영조대 베풀어진 연향을 비롯해 넓게는 각종 왕실행사에 사용되는 도기는 공조와 공조 소속 와서에서 전담하여 조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후기에는 공조 소속 옹장이 조달을 책임지는 구조였지만 이들의 실제 제작까지 도달했던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세금의 형태로 진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⁷⁴⁾

V. 맺음말

지금까지 영조대 연향의례 두 건 『갑자진연의례』와 『수작의례』를 중심으로 도기의 용도와 종류, 조달 관사와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왕실에서 연향의례를 준비하는 많은 과정에서 도기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도기는 주로 사무용, 음식준비용, 장인에게 지급되는 제작도구 등으로 사용되었다.

연향의례에 기재된 도기의 종류는 도동해, 도소라, 도관, 도소탕이, 도자박지, 대옹, 중옹, 족정, 토화로 등이다. 의례에는 크기에 따라 대소(大小)가

도기로 제작한 동해가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해장이 왕실 행사에 필요한 도기를 제작하는 장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제 의례에서 동해장에 지급한 재료와 도구를 보면 오히려 금속제품 제작에 필요한 풍로, 모구피, 백우피 등이 다수를 차지하여 도기 제작 장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嘉禮都監』(奎13122) 稟目秩, 純祖2年(1802), “東海匠所用官材三尺小椽木六箇蒲土三駄蒲土板一箇風爐一坐毛狗皮三令白牛皮一張漚牛皮全長廣三寸一片真油二合白休紙二斤中礪石強礪石各一塊擔桶一部木瓢子一箇橋鐵八箇陶所羅二箇松脂二斤黃蜜四斤馬尾飾一部竹飾一部薄松板二立槌皮所五良衣空石五立三甲所一良衣生麻一斤熟麻一斤柳篋一部生布五尺強鐵半斤小朴槌木一條頭折吐莫一箇廣頭釘三十一箇槓子具鎖鑰—”). 그리고 의례에서 小爐匠, 鑪匠, 權爐匠과 같이 금속 관련 장인들과 인접해 기재되었던 점에서도 동해장은 금속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74) 이 부분은 조선후기 왕실 소용 도기 제작과 조달에 관해서 보다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진 후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되기도 하고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서도 여러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궤에 등장하는 도기와 실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도기와의 매칭을 시도하여 그 실체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었다. 연향에 사용된 도기들은 공조와 공조 소속 와서에서 전담하여 조달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공조 소속 용장이 조달을 책임지는 구조였지만 이들의 실제 제작까지 도맡았던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세금의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기가 화려한 조명을 받는 기물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의궤만 살펴봐도 왕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서 사용된 필수품목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의궤 속 도기의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은 특정 왕실 행사의 준비와 설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복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연구주제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최근 고무적이게도 서울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유적에서 도기가 다수 출토되어 보고되고 있는데 유적출토 도기와 문헌에 기록된 도기를 연결시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연향에 사용된 도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도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嘉禮都監』(奎13122)
『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後續錄』
『六典條例』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英祖貞聖后復位時冊禮都監都廳儀軌』(奎13100)
『英祖貞純后嘉禮都監都廳儀軌』(奎13102)
『慵齋叢話』
『莊祖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奎13108)
『進宴儀軌』(奎14358)
『孝宗王世子及嬪宮冊禮都監儀軌』(奎13062)

2. 단행본

- 고동환,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2013.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受爵儀軌』, 2018.
국립국악원, 『역주 기사진표리진찬의례』, 2018.
국립문화재연구소, 『옹기를 만드는 사람들』, 2009.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향연과 의례』, 2009.
김경실, 『조선시대의 궁중진연 복식』, 경춘사, 2003.
김상보, 『조선왕실의 풍정연향』, 민속원, 2016.
김소현, 『조선왕실 여인들의 복식』, 민속원, 2017.
김연주, 『조선시대 의례 차차 표기 연구』, 경인문화사, 2015.
김중수 역주, 『영조의 기로소 입소 경축 연향을 담다 譯註 英祖甲子進宴儀軌』,

- 민속원, 2017.
- 김중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본질과 여악제도의 변천』, 민속원, 2018.
- 김중수 책임번역, 『國譯 祭器樂器都監儀軌』, 민속원, 2020.
- 김지영 외 역주, 『숙종과 영조의 일생의례 책례가례등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김해영, 『조선왕조의 의례와 왕실 행사』, 현암사, 2018.
- 박가영, 『조선시대 궁중 패션』, 민속원, 2017.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 _____, 『영조 대의 잔치 그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 서유구 저·임원경제연구소 역, 『임원경제지 섬용지 1』, 풍석문화재단, 2016.
- _____, 『임원경제지 섬용지 3』, 풍석문화재단, 2017.
- 성기숙, 『정재의 예악론과 공연미학』, 민속원, 2005.
- 송방송·고방자 외, 『國譯 豐呈都監儀軌』, 민속원, 1999.
- 송방송·박정련 외, 『國譯 肅宗朝己亥進宴儀軌』, 민속원, 2001.
- 송지원, 『조선왕실의 음악문화』, 세창출판사, 2020.
-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2001.
- 아사카와 다쿠미 저·심우성 역,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고재, 1996.
- 안태욱, 『궁중연향도의 탄생』, 민속원, 2014.
- 유본예 저·박현욱 역, 『역주 한경지략』, 민속원, 2020.
- 유송옥, 『조선왕조 궁중의례복식』, 수학사, 1992.
- 이재숙, 『조선의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정수환, 『조선왕실의 의례와 재원』, 세창출판사, 2019.
- 조영준·최주희 역해, 『공패』, 아카넷, 2019.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延齡君嘉禮瞻錄』, 2019.

3. 발굴조사보고서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용산 한강로 유적』,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흥복전 주변지역 발굴조사보고서』, 2014.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 1996.

-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서울 淸進6地區 遺蹟』, 2007.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종묘광장 발굴조사보고서』, 2012.
한울문화재단연구원, 『종로 어영청지유적』, 2011.

4. 논문

-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美術史學報』 48, 2017.
김문식, 「치밀한 의례 기록으로 그린 왕실 연향」,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국립고궁박물관, 2013.
김중수, 「奎章閣 所藏 연향 관련 儀軌 고찰」, 『韓國學報』 113, 2003.
_____, 「조선 궁궐의 잔치, 예와 즐거움이 어우러지다」, 『조선 궁중의 잔치, 연향』, 국립고궁박물관, 2013.
박경지, 「해제」, 『국역 수작의례』, 국립고궁박물관, 2018.
방애영, 「朝鮮末期 宴享 家具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2.
송혜진, 「영조조(英祖朝) 궁중 연향 기록과 도상」, 『한국음악문화연구』 8, 2016.
신승인, 「朝鮮後期 王室 宴享用 白磁 花樽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2.
유재빈, 「궁중행사도와 의례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연향과 채화(綵花)-진화의식과 잠화를 중심으로」, 『美術史學』 38, 2019.
이아름, 「1809년 진찬의례의 진작 기물 연구」, 『규장각』 53, 2018.
이아름·이은주, 「1829년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儀禮)의 진작(進爵) 기물(器物) 연구」, 『문화재』 50-4, 2017.
정희정, 「조선후기 의례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 : 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5.
한혜선, 「조선시대 왕실 소용 도기의 제작 시고」, 『동아시아의 궁중미술』, 한국미술연구소, 2013.

USE AND SUPPLY METHOD OF POTTERY IN UIGWE OF
ROYAL COURT RITUAL BANQUET IN YOUNGJO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HAN HYESUN (HAN, HYE SUN)

This thesis examines the use, types, government office for supply, and method of pottery, focusing on two cases of ritual banquet Uigwe in Youngjo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such as 『Gapjajinyeonuigwe』 (1744) and 『Sujakuigwe』(1765). Through the analysis, this thesis verified various utilization of pottery in many processes of preparing for royal court ritual banquet. The pottery was mostly used for office use, food preparation, and production tool provided to craftsmen.

The types of used pottery include Dodonghae, Dosora, Dogwan, Dosotangi, Dojabakji, Daeong, Jungong, Jokjeong, and Tohwaro. The Uigwe is classified into small and large depending on its size, and it is stated as many names depending on what has been contained in it. And those potteries were mainly supplied by Gongjo and Waseo affiliated to Gongjo. Especial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potters belonging to Gongjo were in charge of supply. However, they did not handle the actual production. They must be paying in the form of tax to a larger extent.

Even though the pottery is not an article under glaring lights, the brief examination of Uigwe certainly shows that it was an essential item used

for various events and daily life of royal court. Like this, examining the aspect of pottery in Uigwe needs to be handled importantly as a research theme that is essential to recompose/restore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preparation, execution, and wrap-up of specific royal court events.

Key Words : Joseon Dynasty, Youngjo(英祖), ritual Banquet, Uigwe(儀軌), pottery(陶器)